

탈북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시민성(市民性)의 특징

김 신 희 (경상대학교)

I. 서 론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2만 5천명이 넘고 가족단위 탈북이 증가하면서 부모님을 따라 한국에 오게 된 탈북청소년의 숫자도 해마다 증가하여 현재 약 2천여 명의 탈북청소년이 전국의 700여 개의 초·중·고등학교와 다양한 대안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 우리 학교 현장은 정치·경제 및 모든 사회 체제와 가치가 다른 국가에서 성장해온 탈북청소년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시민으로 양성해야 하는 쉽지 않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민주주의 제도와 원리로 운영되는 한국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정치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자질은 '민주적 시민성(市民性, citizenship)'이다. 민주적 시민성이란 민주주의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민적 자질을 말한다. 민주적 자질을 갖춘 훌륭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은 민주주의 유지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새롭게 한국 정치사회의 구성원이 된 탈북청소년이 현재 남한에서 추구하는 보편적인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기본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현재 남한사회 적응문제뿐만 아니라 언젠가 통일된 미래에 남북한 정치통합 및 사회통합과 연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래의 정치사회의 주인공이 될 탈북청소년¹⁾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중심으로 하는 시민성의 실태를 조사하고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라 집단별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비교해보고자 한다. 변인에 따른 탈북청소년 집단별 시민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면 탈북청소년을 위한 시민성 함양 교육을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에 대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1) 청소년의 상식적인 개념은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십대 학생을 의미한다. 민법에서는 20세 이하를 미성년자로 인정하고,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학령기인 6세~24세까지의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지원을 하고 있다. 탈북학생들은 정상적인 학령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특히 대안학교 학생들의 연령은 상당히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남한의 정규 중·고등학교와 대안학교의 중·고등학교 과정에 재학 중인 모든 탈북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전국의 정규 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 중인 탈북청소년 287명이 연구 대상이다. 연구대상의 성별은 남학생이 116명으로 40.4%이고 여학생은 171명으로 59.6%이다. 연령 분포는 12~14세가 66명으로 23.0%, 15~17세가 87명으로 30.3%, 18~20세가 105명으로 36.6%, 21~25세가 27명으로 9.0%이고 무응답이 2명이다. 학교급 및 유형별 분포를 보면 중학생이 116명, 40.4%로 비율이 가장 높고 고등학생이 85명, 29.6%이며, 대안학교가 86명, 3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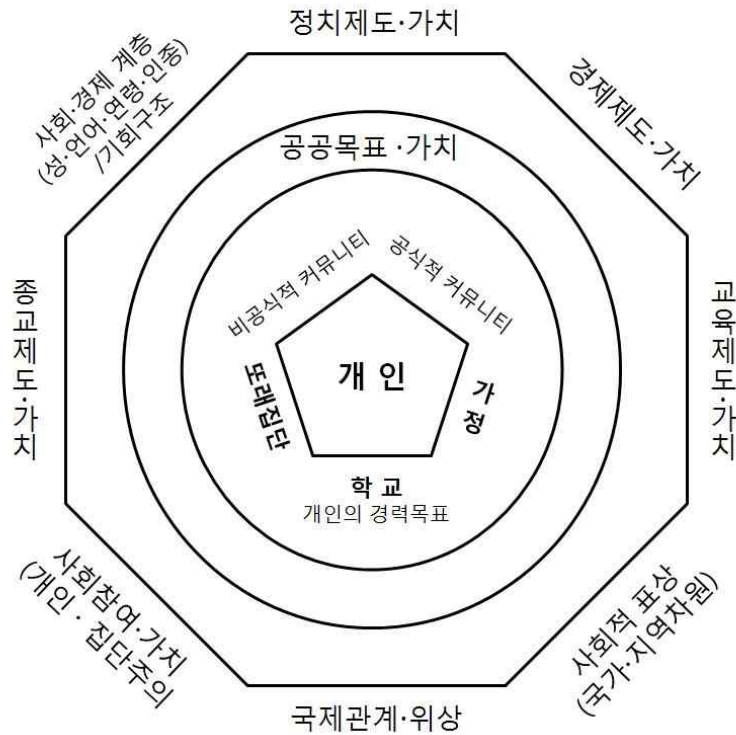
2. 연구 모형 및 조사 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 IEA)에서 주관한 2009년 국제시민성교육연구(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ICCS), 김태준, 2010)에서 전 세계 38개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민성을 조사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한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1 아동 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실태조사(장근영 외, 2011)’에서 사용한 설문지를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ICCS연구는 1971년 IEA의 시민성 조사로부터 시작되었고 그 후 1999년 1차 IEA의 국제시민교육연구(Civic Education Study, CIVED)를 기반으로 하여 본격적인 시민성 조사 연구를 시작하였다. 원래 CIVED의 연구모형은 생태학적 발달 이론과 상황인지 이론에 근거를 두고 개발되었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CIVED 연구모형은 한 개인이 자신을 중심으로 둘러싼 주변의 다양한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 즉 개인은 가족 변인과 학교 변인, 학교안과 밖의 또래집단 변인, 지역사회의 이웃들을 통해서 사회의 공공질서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더 멀리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제도와 기관, 절차 및 가치로부터도 영향을 받는다고 전제하고 있다. 자기가 속한 국가의 국제적 관계와 국제적 위상, 자신의 인종, 성별, 연령, 사용하는 언어에 따라 차별적으로 부여되는 사회적 기회와 사회 경제적 계층 체계 등도 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

이러한 모형을 기초로 CIVED는 시민의식과 관련한 연구의 세 영역, 민주주의와 시민의식, 국가 정체성과 국제 관계 그리고 사회 통합과 다양성에서 학교 내에서의 학습과 학교 밖에서의 시민 참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CIVED의 연구모형은 시민의식 교육은 학교에서 교사가 청소년들의 시민적 권리와 의무를 가르치는 것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속한 학교와 이웃, 국가적 수준의 공동체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공동체에서의 역할 또한 중요한 시민교육의 변수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는 공동체에서 만나는 또래집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림 1> CIVED 연구모형(IEA, 2001: 김태준, 2010 재인용)]



ICCS의 시민성 평가틀(김태준, 2010)은 민주주의에 대한 인지영역과 정의-행동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인지영역은 시민지식 평가척도 80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현대 시민사회와 그 시스템,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이라는 4대 내용 영역에 대한 이해(knowing)와 추론과 분석(reasoning and analyzing)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정의-행동 영역의 문항은 현대 시민사회와 그 시스템, 시민공동체 원리, 시민 참여, 시민 정체성이라는 4개의 내용영역에 대한 가치·신념, 태도, 행위 의지, 실천행위의 4개 하위영역을 측정하는 1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탈북청소년의 시민성의 특성을 조사하는 이 논문은 인지영역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다. 인지영역의 문항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법 등의 한국의 일반사회 과목의 필기시험 문제와 비슷하다. 전세계적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문제의 내용이 매우 국제적이다. 탈북청소년은 북한에서 정치 경제 등을 다루는 사회 과목이 없기 때문에 공부한 적이 없다. 특히 긴 학습공백으로 학업성취도가 낮은 탈북청소년들에게 서구적인 문화적 상징 등이 포함된 인지영역의 문제는 너무 어려워 정확한 평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지적 영역의 시험은 조사도구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설문지에서 측정하는 시민성의 정의-행동 영역의 내용은 민주적 가치신념과 태도 및 시민적 정치 활동 참여의지 2가지로 구성되었다. 시민성 측정을 위한 문항 구성표는 <표 1>과 같다. 본 논문에서

는 ‘민주적 가치·신념과 태도 중 민주적 가치와 권리 인식’과 ‘시민성의 중요성 인식’ 두 가지 문항에 대한 통계 결과를 중심으로 탈북청소년의 시민성의 특성을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별 비교를 통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표 1> 시민성 문항 구성표]

항 목		문항번호	
민주적 가치·신념과 태도	민주주의적 가치 및 권리 인식	문9	
	시민성의 중요성 인식	문10	
	사회적 평등의식	성평등 의식	문13(1-7)
		인종 평등 의식	문14(1-5)
		이민자 평등 의식	문15(1-5)
	국가 정체성	국가에 대한 인식	문 17(1-8)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		문16(1-11)	
시민적 참여	정치 효능감	정치 효능감	문12(1-6)
	정치 활동 참여 의지	합법적 항의	문19(1-6)
		비합법적 항의	문19(7-9)
		미래 정치 참여 의지	문 20(1-7)
		현재 정치 참여 의지	문21(1-5)

3. 자료 수집과 분석방법

표본집단 추출은 교육과학기술부가 2012년 4월 1일자를 기준으로 조사하여 5월에 발표한 탈북학생의 재학현황 통계자료를 활용하였다. 탈북청소년이 재학 중인 전국의 학교 가운데 중학교 44개교 176명, 고등학교 83개교 147명, 대안학교 3개학교, 총130개 학교에 재학 중인 433명의 탈북청소년에게 2012년 8월 20일부터 9월2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최종 회수된 설문지는 총 303부이고 이중 287부가 유효 집계되어 통계 처리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PASW Statistics 20(SPSS 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응답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및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적 통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따른 집단별 시민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F검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탈북청소년의 전체적인 시민성 실태와 경향을 각 문항의 평균과 답지의 응답빈도를 통하여 파악한다.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이 절에서는 설문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탈북관련 특성들을 알아보도록 한다. 최종 유효집계 처리된 응답자 287명의 인구학적 특성을 보면, 남학생이 116명으로 40.4%이고 여학생은 171명으로 59.6%이다. 연령 분포는 12~14세가 66명으로 23.0%, 15~17세가 87명으로 30.3%, 18~20세가 105명, 36.6%로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연령 집단이다. 이는 탈북학생이 학령에 비해 1~2년 높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한 대안학교의 학생들이 연령이 많은 것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하겠다. 20세를 넘는 21~25세가 27명으로 9.0%를 차지하는 것도 역시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많은 나이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급 및 유형별 분포를 보면 중학교 학생이 116명으로 40.4%로 가장 많은 응답자 집단이다. 일반고등학교 학생이 59명으로 20.5%이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26명으로 9.05%이며, 대안학교가 86명으로 30.0%의 비율이다.

응답자의 학교 소재지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시가 142명으로 49.0%로 가장 많고, 다음이 경기도 75명, 26.0%이다. 세 번째로 많은 곳이 경상도(광역시 포함) 23명 8.0%이다. 실제 탈북학생의 소재 및 설문지 배포 순위는 서울, 경기, 인천 순이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인천지역의 응답자는 17명으로 6.0%이며 상위 네 번째이다. 충청도(광역시 포함) 10명 4.0%, 강원도 9명 3.0%, 전라도(광역시 포함) 8명 3.0%, 제주도특별자치도 3명 1.0% 순이다.

부모 학력 수준은 부와 모의 학력 중 높은 학력을 반영한 것으로서 고졸이하가 130명으로 45.0%이고, 전문대졸이상이 76%로 27.0%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북한에서의 학력인지 남한에서의 학력인지의 구분은 조사하지 않았다. 잘 모름 및 무응답이 81명으로 28.0%라는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탈북청소년의 경우 북한에서 부모가 사망하여 무연고 청소년으로 입국한 경우 부모가 계시지 않으므로 잘 모름 및 무응답 하였으리라고 짐작된다. 실제로 응답지를 보면 그룹홈 거주학생들이 부모관련 응답에 잘 모름 및 무응답 처리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추정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학생들의 주관적 인식은 '상'이 4명으로 1.0%로 매우 극소수이고, '중간'이 204명으로 71.0%로 대다수가 응답했고, '하'가 71명으로 25.0%를 차지한다. 무응답은 8명으로 3.0%이다. 이러한 응답으로 볼 때, 한국사회의 북한이탈주민의 객관적인 경제적 현실²⁾에 비해 탈북

2) 북한이탈주민의 가족 총수입은 100만원 이하 52.7%(50만원 이하 18.4%), 101~200만원 38.1%, 200만원 초과 9.2%(400만원 초과 1.0%)이며, 실업률은 10.0%로 경제활동인구 190명 중 취업자 171명(90.0%), 실업자 19명(10.0%)으로 남한 주민의 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고, 실업률은 높은 편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학생들의 자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가 비교적 관대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학생의 학업성적에 대한 주관적 평가는 ‘상’이 31명으로 10.8%이다. ‘중간’은 118명으로 41.1%이고, ‘하’는 132명으로 46.0%이다. 87.1%나 되는 대다수 탈북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성적이 좋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무응답은 6명으로 2.1%이다. 이러한 주관적 평가는 객관적인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와 비교적 근접한 인식이라고 생각된다. 대부분의 탈북학생들의 성적은 한국학생과 비교했을 때 기초학력이 매우 부족하여(한만길 외, 2000;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 2006; 김미숙, 2004) 학교의 학업 성적은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국 거주기간을 보면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응답자가 63명으로 22.0%이고, 1년이상~3년미만이 100명 34.9%로 가장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3년이상~5년미만이 50명으로 17.4%이고 5년이상~7년미만은 36명 12.5%이며 7년이상인 31명으로 10.8%였고 무응답은 7명 2.4%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 즉, 56.9%인 163명이 3년 미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출생국을 보면 북한 출생이 262명으로 91.3%의 비율을 나타내 응답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중국출생은 16명으로 5.6%에 불과했으며 기타 및 무응답이 9명으로 3.1%이다. 최근 탈북청소년의 범주에 포함되어 학교에서 교육적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출생 학생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져서 초등학교의 경우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통계에서 반수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에는 초등학생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출생 학생이 많이 표집되지 않았다. 중학교에 16명의 중국출생 학생이 포함되어 있었고 고등학생 중에는 한명도 없었다.

북한에서 어느 정도 교육을 받았는지 북한 학력을 조사해 보았다. 졸업을 기준으로 분류하지 않고 해당 학교에 재학경험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미취학은 12명으로 4.2%이고 유치원은 8명으로 2.8%, 소학교는 67명 23.3%, 중학교 92명 32.1%로 나타났다. 무응답이 가장 많이 나온 문항이었는데 108명으로 37.6%이다. 이는 학령기에도 북한에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않은 탈북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제3국 체류기간으로 분류해 보면 1년 미만이 72명으로 25.1%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1년이상~3년미만이 52명으로 18.1%, 3년이상~5년미만이 23명으로 8.0%, 5년이상~7년미만은 21명으로 7.3%, 7년이상~9년미만이 12명으로 4.2%이고 9년 이상은 38명으로 13.2%로 나타났다. 무응답은 69명으로 24.0%로 나타나 비교적 무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경유한 나라 중 가장 장기간 체류한 국가가 중국일 경우는 1일, 4일의 초단기간 체류자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1~3개월을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출생 16명 및 북한출생 중국 장기 경유 116명을 합하면 132명이 중국에서 장기간 체류 경험을 하였다. 남한 입국 과정에서 체류하는 제3국은 중국이 가장 많았고 또한 주로 장기 체류의 형태였고 제3국 최장 체류기간도 중국에서였다.

중국 이외의 제3국에서 가장 오래 체류하는 경우에는 동남아 국가와 몽골에서 대체로 1~3개월 정

실정이다.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 취업실업소득,”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2010년 하반기』 (통권 제5호) 2011. 1. 31. p15-16

도 체류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다 장기간의 경우는 3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체류하는 경향을 보였다. 가장 오래 체류한 제3국 중 두 번째 국가는 태국으로 51명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라오스 7명, 몽골 6명, 캄보디아 4명, 베트남 2명, 미얀마 2명으로 나타났다. 1개월 단기 체류가 가장 많지만 2~6개월간 체류한 경우도 상당수가 되고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도 몇 명 있었다. 4년 5개월간 장기 체류한 경우도 1명 있었지만 중국이 아닌 제3국이 장기체류국인 경우에 제3국에서 학교교육을 받은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주거형태는 일반가정에서 거주하는 학생이 201명으로 70.0%로 가장 많은 주거형태였다. 그다음인 학교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이 56명으로 19.5%였고 탈북청소년을 위한 그룹홈(생활공동체)에 거주하는 학생이 18명으로 6.3%를 차지했다. 기타는 8명으로 2.8%이고 무응답이 4명으로 1.4%의 분포를 보였다. 기타의 응답 내용을 보면, 동거하는 경우와 친구와 함께 산다는 응답이 있다.

2000년대에 부모형제 등 가족 없이 홀홀단신 남한에 온 무연고 탈북청소년이 급증했다. 이들은 대체로 기숙사가 있는 대안학교나 그룹홈에 거주하면서 일반학교에 다니는 경우가 많다. 일부 나이가 많은 무연고 청소년은 친구끼리 함께 살거나 남녀 간 동거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주형태에도 그러한 현실이 반영된 응답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유효집계 처리된 전체 응답자의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탈북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표 2>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287	100.0
성별	남자	116	40.4
	여자	171	59.6
연령(만)	12~14세	66	23.0
	15~17세	87	30.3
	18~20세	105	36.6
	21-25세	27	9.0
	무응답	2	0.7
학교급 및 유형	중학교	116	40.4
	고등학교	59	20.5
	특성화학교	26	9.05
	대안학교	86	30.0
학교소재지역	서울특별시	142	49.0
	인천광역시	17	6.0

	경기도	75	26.0
	강원도	9	3.0
	경상도(광역시 포함)	23	8.0
	전라도(광역시 포함)	8	3.0
	충청도(광역시 포함)	10	4.0
	제주도특별자치도	3	1.0
부모 학력	고졸이하	130	45.0
	전문대졸이상	76	27.0
	잘모름 및 무응답	81	28.0
경제적 수준	상	4	1.0
	중	204	71.0
	하	71	25.0
	무응답	8	3.0
학업성적	상	31	10.8
	중	118	41.1
	하	132	46.0
	무응답	6	2.1
북한학력	미취학	12	4.2
	유치원	8	2.8
	소학교	67	23.3
	중학교	92	32.1
	무응답	108	37.6
제3국체류기간	1년 미만	72	25.1
	1년이상 3년미만	52	18.1
	3년이상 5년미만	23	8.0
	5년이상 7년미만	21	7.3
	7년이상 9년미만	12	4.2
	9년 이상	38	13.2
	무응답	69	24.0
한국거주기간	1년미만	63	22.0
	1년이상~3년미만	100	34.9

	3년이상~5년미만	50	17.4
	5년이상~7년미만	36	12.5
	7년이상	31	10.8
	무응답	7	2.4
출생국	북한출생	262	91.3
	중국출생	16	5.6
	무응답	9	3.1
주거형태	일반가정	201	70.0
	그룹홈	18	6.3
	학교기숙사	56	19.5
	기타	8	2.8
	무응답	4	1.4

2. 민주적 가치와 시민성에 대한 인식

가.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탈북청소년이 민주사회의 근본적 구성 원리인 민주주의적 가치와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하위 12개의 진술문장에 대한 동의 여부를 4점 척도로 제시하고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탈북청소년 전체의 응답은 자유로운 의사 표현의 권리에 대해 92%가 동의하여 가장 많은 동의를 얻었다. 이것은 남한청소년들에게도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항목이다. 그 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얻은 항목은 모든 사람의 사회정치적 권리 존중으로 88.2%이고 법이 공정하지 않은 경우 정치적 항의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항목이 86.1%로 세 번째,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가 82.9%로 네 번째 많은 동의를 얻었다. 탈북청소년들은 정치에 대한 개인적인 의사표현의 자유와 사회정치적 권리와 참여에 대한 동의 정도가 매우 높은 반면에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금지(45.6%)와 대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금지(53.5%)에 대한 동의 정도가 절반이하거나 절반을 조금 넘는 정도의 낮은 동의를 보였다.

이러한 수치는 탈북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제도적인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의 자유와 정치적 참여에 대한 의식은 생활의 경험이나 인간의 인지적 발달에 의해 자연스럽게 터득할 수 있는 가치라고 할 수 있지만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갖추어져야 할 제도적 원리와 법에 대한 이해는 체계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지식이 필요하다. 사회교과 중에서도 정치,

경제 제도와 원리를 다루는 일반사회 과목이 없는 북한에서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인 사회를 체험한 적이 없는 탈북청소년들의 경우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치지도자의 가족이 공직에 진출하는 것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허용적인 태도는 북한의 정치적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북한주민들은 김일성-김정일-김정은 3대 부자세습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한다(조정아 외, 2010). 북한은 초기사회화와 평생에 걸친 성년의 정치사회화를 중요시하는데(김충남, 1982; 김학준, 1983 재인용) 아직 어린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아주 이상적인 정치사회화의 장소라고 생각하여(Pak) 사상교양과 교육과정을 통해서 김일성 가계를 중심으로 한 혁명 활동을 '조선역사'의 대부분의 내용이자 핵심적 내용으로 배우고 이를 내면화하기 때문에 김일성의 대를 이어 후계자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남한청소년들의 인식과는 사뭇 다른 것으로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태도 중 남한 청소년과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이었다.

탈북청소년 내의 집단간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변인은 '학교급 및 유형'이었다.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진출 금지」, 「사회정치적 권리 존중」, 「폭력적 항의 반대」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학교급 및 유형'에 의한 집단간 차이가 가장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5$). 차이의 경향성은 중학교 학생들에 비해 고등학교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민주주의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대안학교의 경우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모든 항목에서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민주적인 가치와 권리에 대한 태도의 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고 중학교와 비교해도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이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탈북청소년이 북한이나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면서 교육공백기간이 길어서 학령보다 나이가 너무 많아 일반학교에 다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결과 대안학교에 다니게 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축적된 학업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반적인 배경변인 중 성별, 부모학력, 가정의 경제적 수준, 학생의 학업성적은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탈북청소년이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탈북청소년들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으로 한국거주기간과 출생국, 주거형태를 선정하여 이러한 변인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태도 중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진출 금지」, 「대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 금지」 항목에서 '한국거주기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5$). 탈북청소년들의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질수록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 진출과 대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를 금지하는데 동의하는 경향이 높아지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동의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 '한국거주기간' 변인이 일관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국거주기간이외에 입국할 당시의 연령이라든가 현재의 연령 등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배제할수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도 단정할 수 는 없다.

P. < 0.05에서 유의미함.

[<표 3>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의사 표현의 자유	정치인 가족의 공직 진출 금지	대기업 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 금지	사회 정치적 권리 존중	공개적 정치 비판 가능	자유로운 정치 지도자 선출	정치적 항의 집회 가능	폭력적 항의 반대	빈부간 소득격차 감소
전체(%)		92.0	45.6	53.5	88.2	75.3	82.9	86.1	76.2	79.7
성 별	남학생	89.7	46.6	55.7	87.9	72.4	81.0	83.6	76.7	75.9
	여학생	93.6	45.0	52.0	88.3	77.2	84.2	87.7	75.4	81.9
	t값 (유의도)	-1.148 (0.252)	0.253 (0.800)	.598 (0.551)	-.096 (0.924)	-0.919 (0.359)	-.700 (0.485)	-.982 (0.327)	.379 (0.705)	-1.081 (0.281)
학 교 급 별	중학교	92.2	42.2	55.7	87.1	73.3	83.6	80.2	75.0	79.3
	고등학교	97.6	42.4	64.7	94.1	85.9	92.9	98.8	83.5	88.1
	대안학교	86.0	53.2	39.5	83.7	67.4	72.1	81.4	70.6	72.1
	F값 (유의도)	3.978 (0.020)	1.523 (0.220)	5.792 (0.003)	2.335 (0.099)	4.187 (0.016)	6.840 (0.001)	8.638 (0.000)	2.052 (0.130)	3.421 (0.034)
부 모 학 력	고졸이하	93.8	46.2	58.5	91.5	80.0	84.6	85.4	71.5	80.8
	대졸이상	93.4	47.4	47.4	86.8	73.7	84.2	86.8	78.9	81.6
	t값 (유의도)	0.120 (0.904)	-0.168 (0.867)	1.544 (0.124)	1.019 (0.310)	1.021 (0.309)	0.077 (0.939)	-0.289 (0.773)	-1.384 (0.168)	-.142 (0.887)
경 제 수 준	상	100.0	25.0	50.0	100.0	75.0	100.0	100.0	100.0	75.0
	중	90.7	46.6	51.0	86.8	77.5	81.4	83.8	75.0	79.4
	하	97.2	46.5	60.6	93.0	70.4	88.7	93.0	80.3	83.1
	F값 (유의도)	1.144 (0.320)	0.365 (0.694)	0.775 (0.462)	0.882 (0.415)	0.915 (0.402)	1.121 (0.327)	1.696 (0.185)	0.827 (0.439)	0.260 (0.771)
성 적	상	93.5	51.6	58.1	90.3	83.9	90.3	87.1	71.0	77.4
	중	93.2	44.9	46.6	87.3	70.3	78.0	86.4	75.4	78.8
	하	90.9	45.5	57.6	88.6	78.0	86.4	85.6	78.0	81.1
	F값 (유의도)	0.274 (0.761)	0.230 (0.795)	1.556 (0.213)	0.125 (0.882)	1.664 (0.191)	2.210 (0.112)	0.032 (0.969)	0.352 (0.704)	0.230 (0.795)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진출 금지」에 대해서 1년이상~3년미만 거주 탈북청소년의 경우 39.0%가 동의했지만 3년이상~5년미만 거주한 청소년의 경우 62.0%가 동의하여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더

오래 거주한 5년이상~7년미만 거주한 청소년의 경우 44.4%로 동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었다가 7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의 경우 54.8%로 다시 약간 동의하는 비율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 금지」 항목에 대한 동의 비율도 1년 미만 거주 탈북청소년의 경우 30.2 %로 매우 낮았다가 1년이상~3년미만 거주한 경우 56.0 %로 급증했고 3년이상~5년미만 거주한 청소년의 경우 62.0%, 5년이상~7년미만 거주한 경우 63.9 %로 동의하는 경향성을 지속하다가 7년 이상 거주한 청소년의 경우 61.3 %로 약간 동의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지도자 가족의 공직진출 금지」 항목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동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유지되다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큰 폭으로 하락하지 않았지만 다른 항목의 경우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전반적인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거주기간이 길수록 전반적으로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동의의 비율이 증가하다가 5년 이상이 되거나 또는 항목별로는 7년 이상이 되면서 동의의 비율이 낮아지는 현상이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변인들 중에 가치관의 변화는 시간적 요소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이순형·진미정, 2006). 북한에서 형성된 특정 가치관이 탈북 후 급격히 약화되다가 제3국에서 강화되다가 한국에서 초기에 약화되다가 적응후 오랜 시간이 흐른 후 다시 북한식 가치관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에서의 형성된 가족주의와 물질주의적 가치관이 탈북후 약화되다가 제3국 생활 경험과정에서 약화 정도가 낮아지는 변화가 있고 한국에 입국 직후에 약화되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물질주의와 가족주의 가치관에 강화나 유지 등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가치관의 측정 결과와 변화의 양상이 한국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게 나타나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변화의 요인은 개인적인 요인과 사회적 요인 및 경험 등 다양할 수 있겠지만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동의가 한국에서 거주한 시간의 길이에 따라 다르게 증가했다가 다시 감소하는 현상도 특이한 현상이라기보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적응과정에서 겪는 가치관의 변화 양상과 비슷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동일한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패널연구와 같은 종단연구를 통해서 가치관과 태도의 변화 양상을 추적하고 그 요인을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주거형태’에 따라 「의사표현의 자유」, 「자유로운 정치지도자 선출」에 대한 동의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동의는 탈북청소년 생활공동체인 ‘그룹홈’과 일반가정에 거주하는 탈북청소년이 가장 많이 동의했고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탈북학생들의 동의 비율이 82.1%로 가장 낮았다. 「자유로운 정치지도자 선출」의 권리에 대한 동의를 물어보는 ‘모든 시민들은 정치지도자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항목에 대해서도 역시 그룹홈(88.9%)과 일반가정(87.6%)에 거주하는 탈북청소년의 동의 비율이 높았고 학교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동의비율은 67.9%로 가장 낮았다. 본 연구의 응답자 중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44명, 78.6%는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고 고등학교 재학생이 7명으로 12.5%이며 중학교 학생은 5명으로 8.9%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안학교에 다니면서 학교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의사표현의 자유와 정치지도

자 선출의 자유에 대한 태도가 비교적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4> 민주주의적 가치에 대한 인식]

		의사 표현의 자유	정치인 가족의 공직 진출 금지	대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 금지	사회 정치적 권리 존중	공개적 정치 비판 가능	자유로운 정치 지도자 선출	정치적 항의 집회 가능	폭력적 항의 반대	빈부간 소득격차 감소
전체(%)		92.0	45.6	53.5	88.2	75.3	82.9	86.1	76.2	79.7
한국 거주 기간	1년미만	82.5	38.1	30.2	87.3	69.8	77.8	77.8	69.8	76.2
	1년이상~ 3년미만	94.0	39.0	56.0	87.0	71.0	85.0	87.0	74.0	79.0
	3년이상~ 5년미만	96.0	62.0	62.0	90.0	84.0	88.0	90.0	80.0	82.0
	5년이상~ 7년미만	94.4	44.4	63.9	88.9	86.1	86.1	91.7	83.3	80.6
	7년이상	93.5	54.8	61.3	87.1	77.4	77.4	87.1	77.4	77.4
	F값 (유의도)	2.398 (0.051)	2.466 (0.045)	4.811 (0.001)	0.087 (0.986)	1.614 (0.171)	0.831 (0.507)	1.326 (0.261)	0.648 (0.629)	0.229 (0.922)
출생 국	북한	92.7	46.2	54.4	88.5	75.2	83.6	86.3	76.6	79.4
	중국	87.5	37.5	37.5	87.5	62.5	75.0	81.2	81.2	86.7
	t값 (유의도)	0.888 (0.375)	0.558 (0.577)	-0.424 (0.672)	-0.681 (0.497)	0.769 (0.442)	0.674 (0.509)	1.315 (0.190)	0.127 (0.899)	1.129 (0.260)
주거 형태	일반가정	95.0	44.3	56.7	90.0	76.6	87.6	88.6	77.1	81.1
	그룹홈	100.0	50.0	55.6	100.0	88.9	88.9	88.9	88.9	94.4
	학교기숙사	82.1	50.0	48.2	82.1	66.1	67.9	78.6	66.1	75.0
	F값 (유의도)	6.361 (0.002)	0.354 (0.702)	0.679 (0.508)	2.609 (0.075)	2.281 (0.104)	6.647 (0.002)	1.927 (0.148)	2.382 (0.094)	1.733 (0.179)

* P. < 0.05에서 유의미함.

나.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태도

민주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12가지 하위 진술 중 특히 신체의 자유와 언론 출판의 자유에 대한 진술은 다음 3가지이다. 4)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 7)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예: 검찰, 경찰 등)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검사해야 한다. 12) 국가 안보가 위협하

다고 판단될 때, 정부(대통령과 행정부)는 언론(신문, TV방송 등), 출판(잡지, 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 이는 정부와 국가기관인 검찰과 경찰이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한다는 목적하에 개인의 신체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 보장 및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통제와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탈북청소년들의 태도를 물어본 것이다.

‘경찰은 국가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 없이 감옥에 가둘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항목에 동의하는 탈북청소년은 43.9%로서 56.1%가 반대하였다. 북한 인권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 중 61.4%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침해사건이다(윤여상 외, 2012). 유형별로는 불법구금(60.9%)이 가장 많고 불법체포(6.5%)와 납치/억류/유괴(3.7%) 등의 자유권 침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북한 당국에 의한 신체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 사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69.9%의 사례가 2000년대에 발생했다(윤여상 외, 2012).

이 시기는 대부분이 십대인 조사대상 탈북청소년이 북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시기와 일치한다. 이들이 북한당국에 의해 일상적으로 자행된 불법적인 인신의 구속 등 신체의 자유 침해 상황에 자주 노출되어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 청소년들이 국가 안전이 위협하다 하더라도 재판없이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이 중국이나 제3국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체포 위협에 숨어서 불안하게 지낸 경험이 이러한 의식을 형성하게 했으리라고 짐작된다. 이 항목에서는 탈북청소년내의 어떤 집단 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검찰, 경찰 등)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검사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탈북청소년은 59.9%로 나타나 재판없는 구속보다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가 안보가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정부(대통령과 행정부)는 언론(신문, TV방송 등), 출판(잡지, 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야 한다.’ 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66.4%가 동의하여 가장 높은 동의율을 나타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안보가 위협에 처했을 때, 국가가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에 대해서 탈북청소년은 언론과 출판의 통제에 대해서 가장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 항목에서는 경제적인 수준에 따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동의수준의 순서는 상, 중, 하의 순이거나 반대의 순으로 일관적인 방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이 ‘상’이라고 인식한 학생들의 75%가 동의하여 가장 높았고 경제수준이 ‘하’라고 응답한 학생들은 43.1%가 동의했다. ‘중’이라고 평가한 탈북청소년은 28.6%의 낮은 동의률을 보여 국가 안보의 위협에도 언론출판의 자유 제한에 가장 강한 반대 태도를 나타냈다.

[<표 5>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태도]

		국가안전 위협시 재판없이 구속	국가안전 위협시 통신내용 사찰	국가안전 위협시 언론출판 통제
전체(동의,%)		43.9	59.9	66.4
성별	남학생	37.1	62.1	65.2
	여학생	48.5	58.5	67.3
	t값(유의도)	1.939 (0.054)	-.607 (0.544)	0.356 (0.722)
학교급 및 유형	중학교	44	57.8	67.8
	고등학교	40	63.5	63.5
	대안학교	47.7	59.3	67.4
	F값(유의도)	0.508 (0.602)	0.347 (0.707)	0.228 (0.796)
부모 학력	고졸이하	45	59.2	63.5
	대졸이상	40.8	61.8	74.7
	t값(유의도)	-0.852 (0.395)	0.689 (0.491)	1.641 (0.103)
경제 수준	상	75	75	25
	중	46.1	61.8	71.4
	하	33.3	55.6	56.9
	F값(유의도)	2.617 (0.075)	0.607 (0.546)	4.225 (0.016)
성적	상	45.2	64.5	64.5
	중	44.1	57.6	68.6
	하	41.7	61.4	66.4
	F값(유의도)	0.104 (0.902)	0.318 (0.728)	0.123 (0.884)

* P. < 0.05에서 유의미함.

‘국가의 안전을 담당하는 사람(검찰, 경찰 등)은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편지나 전화, 이메일을 검사해야 한다.’에 동의하는 탈북청소년은 59.9%로 재판없이 인신(人身)을 구속하는데 반대하는 정도(56.1%) 보다는 약한 반대(41.1%)의 태도를 보였고 국가 위협시 언론출판의 통제에 반대하는 비율(33.6%) 보다는 약간 높은 반대를 나타냈다.

국가안전이 위협할 때 개인의 통신내용을 정부가 사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태도는 탈북청소년의 한국거주기간에 따른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차이의 방향이 일관되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1년 미만된 탈북청소년의 57.1%가 개인통신내용의 사찰에 찬성했고 1년 이상~3년 미만 거주자 71%, 3년 이상~5년 미만 46%, 5년 이상~7년 미만 55.6%, 7년 이상 58.1%가 동의하였다.

[<표 6> 국가에 의한 기본권 제한에 대한 태도]

		국가안전 위협시 재판없이 구속	국가안전 위협시 통신내용 사찰	국가안전 위협시 언론출판 통제
전체(동의,%)		43.9	59.9	66.4
한국 거주 기간	1년미만	39.7	57.1	63.5
	1년이상~3년미만	45	71	71.0
	3년이상~5년미만	44	46	70.0
	5년이상~7년미만	38.9	55.6	55.6
	7년이상	51.6	58.1	66.7
	F값(유의도)	0.398 (0.810)	2.463 (0.046)	0.840 (0.501)
출생국	북한	43.5	60.3	67.0
	중국	37.5	50	68.8
	t값(유의도)	-0.470 (0.639)	-0.814 (0.416)	0.140 (0.889)
주거 형태	일반가정	42.8	59.7	67.5
	그룹홈	44.4	72.2	61.1
	학교기숙사	46.4	55.4	64.3
	F값(유의도)	0.119 (0.887)	0.801 (0.450)	0.221 (0.802)

* P. < 0.05에서 유의미함.

다. 바람직한 시민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탈북청소년들이 민주시민성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람직한 시민의 자질 12가지를 제시하고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그중 1)번 부터 6)번까지의 6가지 항목은 자유주의적 시민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시민역량 조사연구(ICCS)에서 고전적 시민성으로 분류하였다(Kerr et al., 2003; ICCS, 2009; IEA, 3020). 7)번 부터 10)번까지의 4가지 항목은 사회운동 관련 시민성으로 분류되어 통계처리 되었다.

탈북청소년들의 바람직한 시민적 자질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성장한 사회의 체제의 영향으로 인한 시민성 부족 현상에 대한 우려와는 달리 전체적으로 그다지 걱정할 필요가 없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맡은 일 열심히 하기’를 93.7%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여 12가지 시민적 자질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항상 법을 지키기’에 90.9%가 응답하여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탈북청소년은 시민성의 내용 중 개인의 도덕성과 관련된 항목 2가지를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선거 참여’가 86.6%로 세 번째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선거참여는 북한에서도 인민의 의무로서 매우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남한만의 영향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북한사회의 영향이라고

불 여지도 있다. 언론에 보도되는 정치문제를 살펴보는 것과 환경보호운동과 지역사회 봉사활동 참여가 80%를 웃도는 비슷한 정도의 중요한 시민성 내용으로 인식되고 있다.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인 시민성 항목은 정당에 가입하는 것으로 36.6%만이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낮은 지지율을 보인 것은 정부대표에 대한 존경심 표현하기와 정치토론에 참여하기였다. 이러한 경향은 북한을 이탈하여 한국에서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된 탈북청소년이 북한의 지배정당인 노동당에 대해 가지는 불신과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한국사회의 현실에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생각된다.

시민성의 모든 항목에 대한 동의를 표시한 사례수와 비율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 바람직한 시민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바람직한 시민이 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행동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간/ 매우 중요함	
	사례수(명)	백분율(%)
1) 모든 선거 참여하기	249	86.6
2) 정당(새누리당, 민주통합당 등)에 가입하기	105	36.6
3) 역사를 공부하기	244	85.0
4) 신문, 라디오, TV, 인터넷에서 다루어지는 정치 문제를 자세히 살펴 보기	243	84.7
5) 정부 대표(대통령, 시장/군수, 장관 및 고위 공무원 등)들에 대한 존경심 표현하기	181	63.1
6) 정치 토론에 참여 하기	191	66.6
7) 불공정한 법에 항의하는 평화적 집회에 참여 하기	204	66.0
8)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활동에 참여하기	240	83.6
9) 인권(인간의 권리) 향상을 위한 운동에 참여하기	235	81.9
10) 환경보호 운동에 참여하기	242	84.3
11) 자신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하기	269	93.7
12) 항상 법을 지키기	261	90.9

바람직한 시민성의 내용을 자유주의적 고전적 시민성과 참여민주주의적 사회운동관련 시민성으로 구분하여 탈북청소년의 중요성 인식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보았다. 탈북청소년들의 「고전적 시민성에 대한 인식」은 본인의 '학업성적' 순에 따라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성적이 높을수록 고전적 시민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게 나타나서 성적과 고전적 시민성에 대한 인식의 관계는 정적인 비례관계로 나타났다.

[<표 8> 바람직한 시민성에 대한 인식 비교]

		고전적 시민성에 대한 인식		사회운동관련 시민성에 대한 인식	
		표준점수(표준오차)	t/F값(p)	표준점수 (표준오차)	t/F값(p)
성별	남학생	49.3739 (0.67852)	-1.250 (0.212)	49.3555 (0.75764)	-1.131 (0.259)
	여학생	50.3965 (0.49203)		50.4350 (0.59480)	
학교급 및 유형	중학교	49.2861 (0.69446)	1.256 (0.286)	49.5646 (0.77276)	0.742 (0.477)
	고등학교	50.0990 (0.60525)		50.8737 (0.76696)	
	대안학교	50.8090 (0.74765)		49.7194 (0.88790)	
부모 학력	고졸이하	50.4035 (0.61375)	0.023 (0.982)	50.1558 (0.67423)	-0.550 (0.583)
	대졸이상	50.3807 (0.76033)		50.7829 (0.94502)	
경제 수준	상	50.2563 (1.00376)	0.022 (0.979)	49.4131 (02.40613)	0.124 (0.884)
	중	50.0496 (0.48229)		50.2104 (0.54632)	
	하	49.8684 (0.78908)		49.6968 (01.01333)	
성적	상	52.4725 (1.14911)	3.427 (0.034)	52.3710 (01.28158)	2.760 (0.065)
	중	50.3489 (0.55265)		50.6178 (0.70540)	
	하	49.1086 (0.63980)		49.0218 (0.71964)	

* P. < 0.05에서 유의미함.

바람직한 시민성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다양한 변인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통계 처리해 보았으나 학업성적 이외의 어떤 변인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간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하였다. 특히 일반적인 인구학적인 변인 이외에 탈북청소년의 특성과 관련된 한국거주기간과 출생국 및 한국내 주거형태와 같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도 유의미한 수준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표 9> 바람직한 시민성에 대한 인식 비교]

		고전적 시민성에 대한 인식		사회운동관련 시민성에 대한 인식	
		표준점수 (표준오차)	t/F값 (유의도)	표준점수 (표준오차)	t/F값 (유의도)
한국 거주 기간	1년미만	49.0267 (0.96131)	1.845 (0.121)	48.7417(0.83077)	0.524 (0.718)
	1년이상~3년미만	51.2588 (0.60694)		50.1522(0.78717)	
	3년이상~5년미만	49.7157 (1.01767)		50.7158(01.30061)	
	5년이상~7년미만	50.4275 (1.04706)		50.2418(01.40054)	
	7년이상	48.1158 (1.24695)		50.3990(01.54435)	
출생 국	북한출생	49.9336 (0.42113)	-0.640 (0.523)	50.0366(0.49244)	0.390 (0.697)
	중국출생	51.0535 (1.59024)		48.9396(1.86262)	

주 거 형 태	일반가정	49.8133 (0.47212)	0.272 (0.762)	49.8824(0.55726)	0.897 (0.409)
	그룹홈	50.8169 (1.61590)		52.1704(01.96759)	
	학교기숙사	50.3402 (0.98220)		49.8010(01.04958)	

*p. < 0.05에서 유의미함.

IV. 결 론

탈북청소년의 민주적 가치와 권리에 대한 인식과 민주적 시민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본 결과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수준은 비교적 높게 나타나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민주주의의 원리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받거나 사회생활 속에서 경험한 적이 없음에도 시민성 수준이 높은 것은 한국사회에 어린나이에 입국하여 학교교육을 받으면서 빠르게 민주적 가치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고 또한 민주적 가치와 인권 및 시민성의 내용은 인간의 본성과 보편적 가치와 도덕을 기반으로 하므로 서로 중첩되는 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도 있다.

또한 체제는 다르고 목적도 다르지만 남한과 북한이 동일하게 중요시하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북한사회의 영향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북한에서도 강조하는 선거참여와 같은 긍정적 영향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의 불법적 인신구속과 자유권 중심의 심각한 인권 침해의 경험도 반사적인 영향을 미쳐 탈북청소년이 국가위협 시에도 국민의 기본권의 제한에 비교적 높은 반대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교급과 유형이었다. 모든 항목은 아니었으나 의사표현의 자유와 대기업과 정부의 언론사 소유금지, 공개적 정치비판가능, 자유로운 정치지도자 선출, 정치적 항의 집회가능, 빈부간 소득격차 감소 와 같은 항목에서 학교급과 유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으로 작용하였다. 학교급간의 차이는 연령의 차이로도 환원될 수 있으므로 연령에 의한 성숙의 영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학교급간의 차이에 따른 지속적 교육의 축적과 교육과정의 차이에 의한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탈북청소년은 다른 학교급의 탈북청소년에 비해 대부분의 민주적 가치와 태도의 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다. 대안학교의 재학생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고 학업공백과 학습결손이 많아 여러 가지로 학업에 어려움이 많다. 앞으로 정규학교에 다니는 탈북청소년들과 비교해 대안학교 학생들만이 가지는 특성을 잘 파악하여 이들에게 필요한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을 개발하고 실시할 필요가 제기된다.

정치인의 가족공직 진출금지와 대기업과정부의 언론사 소유금지에 대한 동의 수준에서 한국거주기간 변인이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나타냈다. 한국거주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대체로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지다가 5년이 지난 후 다시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수준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일정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통계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유의미한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하다. 한국거주기간이외의 다른 변인, 연령이나 학교급별과 유형 또는 북한 학력 등 다른 변인이 통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한국거주기간은 탈북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일정기간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와 자유로운 정치지도자 선출에 대한 인식은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일반가정과 그룹홈에 거주하는 탈북청소년이 학교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에 비해 민주적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위 두 항목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공권력에 의한 재판 없는 구속이나 통신내용 사찰과 언론통제에 동의하는가라는 국민의 기본권 제한의 범위에 대한 인식을 질문에서 탈북청소년은 대체로 기본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인에 따른 유의미한 인식 수준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은 많지 않았다. 가정의 경제수준에 대한 자기 인식은 은 국가안보 위협 시에 언론통제에 대한 동의 여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는데 경제수준 상이 가장 낮은 동의를 보였고 중이 가장 높은 동의를 나타냈다.

한국거주기간 변인은 국가안보 위협 시에 정부의 통신내용 사찰에 대한 동의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거주기간과 동의수준이 같은 방향으로 비례하거나 반비례하지 않지만 한국거주기간별로 구분된 집단은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시민성 요소 12가지를 고전적 시민성과 사회운동관련 시민성으로 구분하여 이 두 종류의 시민성의 중요도에 대한 탈북청소년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찾아보았다. 고전적 시민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은 성적이었다. 성적이 높을수록 고전적 시민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탈북청소년이 시민성요소의 중요성 인식에 대해 탈북관련 변인은 전혀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변인들의 시민성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게 나타난 것은 탈북청소년 집단이 한국사회의 다른 집단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매우 동질적 집단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이탈주민들 내에도 학력과 계층에 따른 의식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들 내부의 차이는 다른 한국사회 구성원들과의 비교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비하면 미미한 차이일 수 있다. 특히나 탈북청소년으로 제한된 집단을 다시 인구사회학적으로 구분하여 차이를 보려고 했으나 차이보다는 동질성이 큰 집단이기 때문에 인구사회학적 변인에 의한 시민성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일부 한국거주기간과 학교급별 유형에 따른 시민성의 차이는 흥미로운 것으로 향후 보다 세밀한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 김미숙, 『북한이탈학생의 학교적응 실태 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4)
- 김태준, 『한국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비교 연구: 국제시민교육연구(ICCS)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10)
- 김학준, 『한국정치론』 (서울: 한길사, 1983)
- 북한인권정보센터, “2010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 취업실업소득,” 『북한이탈주민 경제활동 동향 2010년 하반기』 (통권 제5호) 2011. 1. 31.
-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학교통일교육연구팀, 『새터민 학생의 입국초기 학력진단평가 자료 개발』 (서울: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2006)
- 윤여상 외, 『북한 인권 백서』 (서울: 북한인권정보데이터베이스, 2012)
- 이순형·진미정, “새터민의 가치관 변화: 물질주의, 집합주의, 개인주의, 가족주의와 성역할태도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006) Vol.13 No.3. pp.1-19.
- 장근영 외, 『아동·청소년의 민주시민역량 국제비교 및 지원체계 개발 연구 I : 2011민주시민역량실태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1)
- 조정아 외, 『북한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서울:통일연구원, 2010)
- 한만길외, 『남북한 학생의 학력수준 비교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2000)
- David Kerr, Elizabeth Cleaver, Eleanor Ireland and Sarah Blenkinsop, Citizenship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First Cross-Sectional Survey 2001-2002 (Nottingham: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2003)
- Pak, J. Socio-Political Influences on Educational Goals in North Korea: An Analysis of Kim Il Sung and Kim Jong Il's Works on Education(1946-1986),
- Schulz, W., Ainley, J., Fraillon, J., Kerr, D., & Losito, B., ICCS 2009 International Report: Civic Knowledge, Attitudes, and Engagement Among Lower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38 Countries,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IEA), 2010)
- Torney-Purta, J., Lehmann, R., Oswald, H., & Schulz, W.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Amsterdam: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Eval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IEA), 2001)